

The Political Unconscious에 나타난 Fredric Jameson의 장르론

梁 京 柱*

I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문학장르론은 "종류"를 뜻하는 genre란 말이 암시하고 있듯이 문학작품을 분류하여 문학이라는 복잡다단한 현상을 설명하고, 거기에 질서를 가져오기 위한 논의라 할 수 있다.¹⁾ 이러한 의미에서 장르론은 Aristotle의 Poetics에서 최초로 시도되고 체계화되었으며, 르네상스 시대 이후 다시 크게 일어나기 시작하여 신고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각 장르를 불변의 틀로 여기고, 각 장르에는 엄격한 법칙들이 있어서 그 장르에 속하는 작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하며, 각 장르간에는 위계질서(hierarchy)가 있어서 최상의 장르는 서사시와 비극이며, 그 다음으로 희극, 풍자, 서정시 등의 순으로 보려고 하는 전통적 장르론이 확립되어²⁾ 장르론이 문학론의 중심이 될 정도로 큰 힘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는 소설과 수필 그리고 서정시도 서사시도 아닌 이 양자가 혼합된 형태의 장시가 등장하여 전통적인 장르론은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더구나 19세기에는 소설과 서정시의 절대적 우위로 전통적 장르론은 무의미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여러 가지 형태의 장르론이 계속하여 나타났으나 그 힘은 약화되고 말았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문학장르론의 약화추세는 계속되어 Benedetto Croce를 위시한 표현론자들이 문학장르에 관심을 가졌으나 장르론을 크게 부각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장르론의 쇠퇴라는 흐름 속에서도 문학장르론을 각각 역사와 신화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고 새로 정립하려 했던 두 문학이론가가 나타나게 된다. 그들은 Georg

*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1) 이상섭, 『文學批評用語事典』(서울:민음사, 1978), p. 247.

2) *Ibid.*, pp. 247~248.

Lukacs와 Northrop Frye다. Lukacs는 Hegel의 「미학」, *Ästhetik*의 절대적 영향하에서 문학작품, 특히 대서사시와 장편소설을 “세계정신(Weltgeist)”이 역사적으로 실현되어 가는 연속적 여러 단계를 필연적으로 보여주는 반영물로 보고, 장르의 발생, 변화, 소멸이라는 과정과 세계사의 진행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며, 또 장르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에 나타난 획기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확신을 문학장르에 대한 사유의 전제로 삼았다.” 이에 대하여 Frye는 “언어질서로서의 문학”이 “하나의 전체로서 자연질서”를 모방한다고 보고, 또 인류의 근본적 신화라고 보여지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계절에 관련된 신화를 문학의 4대 장르인 희극(봄), 로맨스(여름), 비극(가을), 아이러니와 풍자(겨울)의 원형이라고 보았다.”

이 글에서는 Lukacs와 완전히 동일한 입장에서 서 있는 것은 아니나, 장르를 역사의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점에서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여러가지 문학방법론들, 그 중에서도 특히 구조주의 방법론과 Frye의 방법론을 역사화하여 재해석하려 했던 Fredric Jameson의 장르론을 *The Political Unconscious*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의 장르론의 성격을 검토하려 한다.

II

20세기 후반의 대표적 Marxist 문학비평가 중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Jameson은 Sartre를 연구한 미국의 비평가로서 *Sartre: The Origins of Style*을 필두로, Marx이후 Marxist들의 이론을 검토한 *Marxism and Form*, 그리고 Marxist 비평가의 관점에서 프랑스의 구조주의와 러시아의 형식주의 문학이론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가했던 *The Prison-House of Language*에 이어, 그 뒤 10년만인 1981년에 그의 Marxist 문학이론의 총결산이라 할 수 있는 *The Political Unconscious*를 출간했다. 이 책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는 그의 핵심적 문학이론이라 할 수 있는 문학 텍스트의 해석론을 다루고 있고, 제2장에서는 그의 해석론을 로맨스(romance)를 중심으로 하여 장르론에 적용시켜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가 제1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학 텍스트 해석론을 바탕으로 장르론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장르론에 대하여 언급하기에 앞서서 제1장에서 논하고 있는 그의 문학론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Political Unconscious 제1장 “On Interpretation”에서 Jameson은 먼저 Marxist 문학 이론가로서 일차적으로 당면해야 했던 여러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Hegel과 Lukacs로 대표되는 전통 Marxism과 Althusser를 중심으로 한 구조주의적 Marxism 사이의 논쟁³⁾을 Althusser가 전통 Marxism의 사회설명 모델인 상·하부의 이항 모델 대신에 제안한 4개의 실천영역, 즉 정치, 경

3) Paul Hernadi, 「장르론」, 金俊五譯 (서울: 文章社, 1983), p. 145.

4) *Ibid.*, pp. 159~167.

5) 이 논쟁은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에 의하여 역사가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간다고 주장하는

제, 이데올로기, 과학으로 구성된 사회 구성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매개”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적 현실과 이데올로기 텍스트 사이를 전통 Marxist 문학론에서처럼 무매개적 직접성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 둘을 완전히 이질적인 것으로 처리하는 형식주의적 밀폐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모든 해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형식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알레고리적 구조를 갖고 있음을 논하여 후기 구조주의자들과 해체론자들의 반해석론을 반박하고⁶⁾ 여러 가지 해석약호들 중에서도 그 모든 약호를 포괄하는 mast-r code가 역사가 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해석의 세가지 지평(semantic horizons)을 제시하여 제1지평에서는 그가 Levi-Strauss의 이론⁷⁾을 빌어 문학 텍스트를 사회적 모순을 상상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상징행위로 보았듯이 개별 텍스트의 해석에만 밀폐되는 텍스트 설명(explication de texte)을 지양하고 정치적 차원에서 텍스트를 사회의 모순을 상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상징행위로 읽어야 하며, 제2지평에서는 사회의 차원에서 텍스트를 사회계급의 적대적이며 집단적인 계급담론으로 확대하여 그 계급담론의 식별가능한 최소 단위인 이데올로기소(ideologeme)로 읽어야 하고, 제3지평에서는 텍스트를 역사적인 차원에서 생산양식 전체와 관련하여 상징적 전언인 “형식의 이데올로기(ideology of form)”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자면, Jameson은 제1장에서 반해석을 주장하고 나선 후기 구조주의자들에 맞서서 Marxism 해석학이 절대적 우월성을 논증해 보이기 위한 문학해석론을 제시해 보이고 있다 할 수 있다.

III

Jameson은 일차적으로 장르란 문학상의 제도이며, 작가와 독자간의 사회적 계약이고, 그 기

기존 사적유물론의 발상이야말로 역사의 마지막 끝을 상징하는 관념론적 목적론이라고 반박하면서 역사주의의 기본적 전제인 상·하부의 위계적 이항 모델을 Althusser를 중심으로 한 구조주의적 Marxist들이 거부함으로써 시작된다.

- 6) Jameson은 특히 반해석론을 주장하고 나선 Deleuze와 Guattari의 텍스트 내에서도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적법한 내적 판단기준은 은연중에 암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또한 새로운 해석학을 투사해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석불가능론을 주장하고 나선 반해석론자들조차 그들의 텍스트 내에 새로운 해석학을 투사해내고 있다면 이는 텍스트의 의미를 찾는 해석행위 자체가 불가피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Fredric Jameson, *The Political Unconscious: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 (London: Methuen & Co. Ltd., 1981), pp. 21~23.
- 7) Levi-Strauss는 Caduveo족의 얼굴문양 장식법을 그들 사회제도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실제 사회의 모순인 그 사회의 계층적 모순을 순전히 미학적인 차원에서, 다시 말하면, 상상적으로 해결하려는 집단적 무의식인 정치적 무의식에 의하여 매개된 사회적 상징행위로 보았다. Claude Levi-Strauss, *Tristes tropiques*, trans. John Russell (New York: Atheneum, 1971), p. 176. Fredric Jameson, *The Political Unconscious: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 pp. 78~79에서 재인용.

능을 특징한 문화텍스트의 적절한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있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문학장르는 불변고정의 틀이 아니고, 문학이론의 제약을 넘어서서 문학텍스트는 기존의 형식과 장르에서 계속하여 이탈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이러한 장르이탈의 결과 옛 장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옛 장르가 다시 불활되어 나타나게 되면, 옛날과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으로 여긴다. 예를 들면, 후기 자본주의 시대로 들어와서 리얼리즘이 물화(reification of realism)되기 시작하면서 로맨스가 다시 나타나서 서사의 이질성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었으며, 오늘날 억압적 사실주의가 얽매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원칙(reality principle)"으로 부터 이탈하여 해방될 수 있는 장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로맨스는 고착화되어 있는 현실을 악마적으로 또는 유토피아적으로 변형시키리 수 있는 가능성과 역사의 리듬을 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게 된다. Marxist 문학비평에 있어서 장르의 개념이 전략적으로 중요시되는 것은 개별 텍스트의 내재적 형식을 형식의 역사와 사회의 진화라는 이 두 통시적 관점과 상호연관지어 줄 수 있는 장르의 개념이 갖고 있는 매개적 기능 때문이다.

Jameson은 현대의 장르비평을 의미론적 장르비평과 통사론적 또는 구조적 장르비평으로 대별한다. 전자는 개별 텍스트의 배후에 들어있는 어떤 상상적 실체를 재구성함으로써 장르의 본질이나 의미를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바로 Frye의 방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후자, 즉 통사론적 구조적 장르비평 방법은 장르의 구조와 구성을 밝히려 하며, 또 장르구조나 그 작용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Vladimir Propp가 *Morphology of the Folk Tale*에서 장르를 일련의 분명한 기능이나 우리가 구조라고 부르는 "고정된 형식(a fixed form)"의 관점에서 파악하려 했던 방법이 이 구조적 비평방법에 해당된다.

Jameson은 이 두가지 장르비평 방법이 단순한 역의 관계가 아니라 변증법상의 반이나 부정(dialectical opposite or negation)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또 이 두 장르비평 방법은 언어의 본질상 생겨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그는 이 두 장르비평 방법 중 의미론적 장르비평 방법은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장르해석 방법으로서 이 방법으로는 "텍스트란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반하여, 구조적 접근 방법은 "텍스트는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보다 새로운 비평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Jameson은 이러한 비평방법을 사용해서는 장르의 본질을 불가피하게 대립되는 두개의 본질로 파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답습하기 보다는 이 두가지 장르해석 방법을 변증법적으로 재고(rethinking)하여 이 두 장르해석 방법이 찾아낸 결과들을 역사화함으로써 장르의 이데올로기적 의미나 장르의 역사적 흥쇠의 운명을 파악하려 하며,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장르문학사를 변증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이려 한다. 왜냐하면, 그 비평방법이 무슨 비평방법이든간에 일반화를 지향하는 모든 비평방법은 변증법적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인 것, 부재의 것, 그리고 모순되는 것이나, 억압된 것, 말해지지 않은 것(the non-dit)이나 생각되지 않은 것(the impensé)을 은폐·제거하기 위한 전략적 투시법을 취함으로써 역사성을 억누르고 있고, 또 그 자체의 모순을 감추고 있음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억압되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정치적 무의식”을 매개로 해서만 드러나게 되는 실현되지 못한 욕망의 흩뿌려진 의미소들(dispersed semes)이며, 또한 역사화하여 변증법적 측면에서 파악하려 할 때 사회적·역사적 모순을 드러내 주는 이데올로기소(ideologeme)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Jameson에 있어서 장르비평 방법은 Frye의 방법처럼 장르의 본질적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거나, 아니면 Propp의 방법처럼 장르의 구조를 드러내는 작업이 아니라, 사회 모순을 상상적으로 해결하는 상징행위로서의 문학텍스트를 해결하기 위하여 맨 먼저 찾아내야 할 좌절된 욕망을 보여주는 의미소들과 사회의 모순을 보여주는 이데올로기소를 드러내기 위한 작업의 일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ameson은 이러한 장르접근 방법을 Frye의 로맨스 해석방법과 Propp의 구조적 장르접근 방법에 적용시켜 보이고 있다. 그는 먼저 Frye의 로맨스 이론을 검토하여 윤리적 의미를 갖는 선악악이 로맨스의 주요 요소가 되고 있고, 이 선악의 문제는 2항 대립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를 역사화하여 보게 되면, 그것은 사회적, 역사적 모순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데올로기소로 나타나게 되며, 또한 이 이데올로기소들은 사회상황을 단순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실천 형식으로서 구체적 역사상황에 대한 상징적 해결책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본다. Jameson은 그 구체적인 예로서 선악의 세계는 로맨스에만 나타나는 요소가 아니라 무용담(*chanson de geste*)이나 미국의 서부극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사회가 혼란하여 산적과 야만족에게 괴로움을 받았던 Caroling 왕조 시대에 쓰여진 무용담에서는 선악이 개념이 타자성을 기준으로 하여 인간에게 적용되었던 것이 12세기를 들어오면서 사회가 안정되고 봉건귀족이 새로이 등장하여 역사의 주체이자 보편계급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타자성을 갖는 인간에게 적용되었던 악의 개념과 타자성을 갖는 인간에게 악의 개념을 더 이상 투사시킬 수 없는 시대적 상황 사이에 모순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로맨스에서는 타자성을 갖는 인간에게 주어졌던 악의 개념이 마술이나 요술의 세계로 대체됨으로써 당시 사회의 사회적 모순을 상상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서 Jameson은 Propp의 동화모형을 검토하여 이 모델이 서사의 구조적 상동관계(homology)를 확인하고 유형화하는 데 매우 적절하며, 또 이 모델은 어떤 특정한 텍스트가 이 모델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알려주어 이들 형식상의 차이가 갖는 변증법적, 역사적 문제를 제기해 준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 모델로 분류할 수 없는 것들, 즉 Propp의 모델에서 이탈하고 있는 인물들의 기능이 텍스트에 들어 있는 역사를 드러내는 것들이며, 또 그러한 이탈이 사회의 모순을 상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 상징적 행위가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Jameson은 이러한 그의 이론을 *Wuthering Heights*와 *Le Rouge et le noir*에 적용해 보이고 있다. 전자들 예로 들어 설명하면, 주인공 Heathcliff가 시혜자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의 기능은 Propp의 모델에서 이탈하고 있으며, Heathcliff가 시혜자로서 그 역할이 이동됨으로써 그 역할의 이동을 사회의 모순, 즉 당시 자본주의의 출현과 농촌사회의 쇠퇴라는 모순을 드러내 주는 이데올로기소로 나타나며, 또 이 역할의 이동은 많은 재산을 갖고 초기 자본주의자로 변모하여 돌아온 Heathcliff가 시혜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에 의한 농촌사회의 활성화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사회적 모순이 상상적으로 이야기 차원에서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IV

Jameson은 장르의 생성·소멸의 문제에 대하여 로맨스 장르의 경우를 예로 들어 Lukacs와 Frye의 이론에 수정을 가한다. 부연하면, 장르의 발생·소멸 과정과 세계사의 진행 사이에 관계를 강조하여 한 장르는 시대에 따라 영원히 소멸하고 새로운 장르가 나타나게 된다는 Lukacs의 이론과, 장르의 역사성을 부정하여 장르란 태양신화에 기원을 둔 것으로 희극, 로맨스, 비극, 풍자 장르는 “상위모방”이나 “하위모방” 또는 “혼합모방”으로 치환된 것일 뿐 초시간적, 초역사적으로 존재하며 영원하다는 Frye의 이론 중에서, Lukacs에게는 장르와 역사와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Frye에게서는 장르의 초시간성을 받아들여서 장르는 생성·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늘 존재하는 것이지만 시대에 따라 역사적 성격을 띠게 되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Jameson은 이러한 그의 장르의 생성·소멸에 대한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로맨스 장르는 그 본질적 요소인 요술과 타자성이 시대에 따라 치환·충당되면서 오늘 날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중세 로맨스의 요술과 타자성은 사회가 속화되면서 19세기초 Manzoni의 *I Promessi Sposi*에서 볼 수 있드시 종교적인 것으로, 다시 말하면, 중세 로맨스의 “흑백 요술(White magic, black magic)”이라는 옛 요술적 범주는 선과 악의 갈등으로 대체되었으며, Stendhal의 *La Chartreuse de Parme*에서는 Manzoni가 처했던 이탈리아의 사회적 여건과 다른 프랑스의 사회적 여건 때문에 *I Promessi Sposi*에서와는 달리 요술의 범주가 미신으로 대체되었으며, 브르조아가 사회의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자 옛 요술적 요소들은 신학이나 심리학의 긍정적 요소로 바뀌게 되었고, 19세기 말에 이르러 요술적 범주들과 대체할 수 있는 세속적 상용물을 찾아낼 수 없게 되자 환상의 영역이 요술적 요소들과 대체되어 작품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Jameson은 설명한다.

V

앞서 우리는 Jameson이 현대 장르비평의 2대 조류인 의미론적 장르 해석방법과 구조적 방법이 그 자신의 텍스트 해석방법에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이고 있으며, Lukacs와 Frye와의 절충적 입장에 서서 장르에 역사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음을 살펴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Jameson이 전통적 장르분류에 대하여 결국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나 하는 문제를 잠깐 살펴볼 차례다.

Jameson은 전통적 장르비평이 지나치게 장르를 유형화하는 작업을 경계한다. 왜냐하면, 텍스

트란 구조적으로 모순되는 이질적 요소와 장르양식 그리고 담화가 복합되어 있는 “공시적 동일체 (synchronic system)”에서, 한 텍스트 내에서는 기존 심층구조형식과 새로 나타나는 소재들 그리고 장르체제간에 갈등이 계속일어나게 되고, 또한 텍스트 내에서 여러 가지 장르양식이나 요소가 공존하고 있거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Jameson은 절충적이고 잡다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소설장르를 예로 들어 장르를 전통적 장르카테고리로 분류하려 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고 말한다. Manzoni의 작품 *I Promessi Sposi*를 예로 들면, 그 작품은 로만스나 역사소설 그리고 Byzantine novel로도 분류될 수 있으며, Stendhal의 소설들도 Bildungsroman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는 없으며, 다시 *I Promessi Sposi*를 예로 들면, 그 작품은 Renjo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형식상 모험소설로 볼 수 있고, Lucia를 중심으로 보면, gothic novel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Jameson은 소설이 외형적으로는 통일되어 보이는 형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텍스트의 구조상 여러 층이 중첩된 구조를 갖고 있고, 이질적 잡다한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어서 소설을 어느 한 장르로 분류하는 일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소설은 하나의 유기적 동일체로 파악하기 보다는 그 자체로서 특수하고 서로 모순되는 이데올로기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질적 서사모형을 결합하고 조화시키는 하나의 상징행위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장르를 그와같은 차원에서 분석하게 되면, 장르범주들은 또 한번 해체되어 장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역사상의 모순이나 이데올로기소로 화하게 되고, 이런 장르해체 순간에 이르게 되면, 모든 장르범주들은 아무리 오래된 전통적 장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특정한 텍스트를 위하여 설정해 놓은 것으로서 일단 분석하고나면 버려지고 마는, 단지 임시 만들어 놓은 실험적 구조물로 이해해야 한다고 Jameson은 보고 있다. 또한 장르비평도 장르를 그렇게 이해할 때에 만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회복하게 되며, 텍스트를 사회의 모순을 상상적으로 해결하는 사회 상징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 공시적 역사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통시적 구조물”들을 투사하여 보여 주는 실험적 실체들을 창조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얻게 된다고 보고 있다.

- 8) 물론 Jameson이 전통적 장르분류법을 전혀 무익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그는 비극과 희극, 서정시, 서사시 등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전통적 장르분류체계도 그러한 장르가 나타날 당시에는 그 자체의 객관적 타당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서 현대 비평가들에게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인식을 자극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실사 비평가가 전통적 장르분류법에 따라 어떤 텍스트를 그 텍스트에 들어 있는 희극적 요소를 간파하고 로만스적 요소만을 간파하여 희극이라기 보다는 로만스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은 텍스트를 변증법적 관계에서 파악하게 되면 그 텍스트의 특성이나 장르양식, 그리고 그 텍스트의 장르양식과 대립되는 장르양식의 특성을 밝혀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Ibid.*, pp. 141~142.

VI

지금까지 *The Political Unconscious*에 나타난 Jameson의 장르론을 검토했다. 그 결과를 그의 장르론의 성격과 연결지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넓은 의미에서 장르론을 문학작품을 분류하여 문학이라는 복잡다단한 현상을 설명하고 거기에 질서를 가져오기 위한 논의라 한다면, Jameson의 장르론은 그런 입장에서 서 있지 않다. 그는 문학작품을 분류할 기준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어떤기준에 의하여 문학작품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그는 그가 현대 장르비평의 2대 흐름으로 분류한 의미론적 장르비평이나 구조적 장르비평가들처럼 장르의 본질적 의미를 찾거나 아니면 장르의 구조를 밝히는 작업을 하고 있지도 않다.

Jameson이 장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입차적으로 장르가 문학을 사회의 모순을 상상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사회 상징행위로 해석하려는 일관된 그의 노력에 큰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Lukacs와 Frye의 이론을 절충한 입장에서, 다시 말하자면 장르란 생성·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늘 존재하는 것이지만 시대에 따라 역사적 성격을 띠고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입장에서 의미론적 장르비평의 대표적 이론가인 Frye와 구조적 장르비평가의 한 사람인 Propp의 장르이론을 역사화하여 변증법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그러한 방법들이 그가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다시 말하면 정치적 무의식이 매개되어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 보여주는 이데올로기소를 들추어내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그의 장르론은 그의 막스주의 문학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의 문학론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그는 장르를 마침내는 해체되어 문학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역사상의 모순이나 이데올로기소를 드러내 주는 것으로서 어떤 특정한 텍스트를 위하여 임시 설정해 놓은 실험적 구조물로 보고 있으며, 장르비평은 문학텍스트를 "사회 상징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 공식적 역사상황으로 되돌아 가기 위하여, "통적적 구조물"들을 투사하여 보여주는 실험적 실체들을 창조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는 작업으로 파악하고 있다.

Summary

Fredric Jameson's Genre Criticism
in *The Political Unconscious*

Yang Kyoung-zoo

If in a broad sense genre criticism is to clarify complicated literary phenomena and to establish order by classifying literary works, Fredric Jameson's genre criticism is not in such theoretical position. He does not suggest some standards to classify literary works by or try to classify them by some standards. In addition, like a semantic or a structural genre critic, he does not try to clarify a intrinsic meaning of genre or its structure.

Basically Jameson's interest in genre is caused by his belief that genre can provide a solution to his efforts to interpret a literary text, that is, a cultural artifact as an social symbolic act to resolve real political and social contradictions. Jameson takes an eclectic position between the genre theories of Lukacs and Frye, in other words, the position that genre does not come into being or go out of existence, but though being always in existence, genre takes on a new meaning and a historical character according to the times. By historicizing dialectically and reexamining, in such a eclectic position, the genre theories of Frye, one of the prominent semantic genre critics and of Propp, one of the leading structural ones, Jameson tries to show that his approach to genre can be used as a literary method which reveals ideologemes that through the political unconscious disclose social contradictions.

As we have discussed, Jameson's genre theory constitutes a core of his Marxist literary criticism. In conclusion, firstly Jameson regards genre as a experimental structure formed provisionally for a specified literary text, in other words, a structure that through its final dissolution, reveals historical contradictions or ideologemes required to read a literary text. Secondly, he considers genre criticism as operations conducted to return to a synchronic historical situation, in which a literary text can be interpreted as a socially symbolic act, by organizing creatively and presenting experimental substances which can project and show a diachronic structure.